불교 숫자, 삶에서도 써보자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일(一), 십(十), 입(廿), 삽(卅), 십(卌)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를 아는가? 숫자를 통해 여러 가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라는 한자 일(一)이 뚫다는 뜻인 곤(丨)을 만나면 '열 십(十)'이 된다. 열에 열을 더하면 '스물 입(廿)'이고, 열을 더 더하면 '서른 삽(卅)'이 된다. 게다가 열을 더 더 하면 '마흔 십(　)'이 된다. 열에 열을 곱하면 '온 백(百)'이 되고, 열을 더 곱하면 '즈믄 천(千)'이 된다. 온은 모두라는 뜻에서 백퍼센트라는 말이 된다. 천은 즈믄이라고 한글로 부르기도 한다.

'서른 삽'은 아는 이들은 알고 모르는 이들은 잘 몰라서 헷갈리기도 한다. 행선축원(行禪祝願)이라는 것을 새벽예불에 하는데 이 때 '원아관음 삽이응(願我觀音卅二應)'이라는 글을 출판사 가 삼이응(三二應)이라 잘못 쓰기도 한다. 삼이(三二)를 보고 삼이응(三二應)이라 읽어도 문제없어 보인다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삽이응'을 '삼이응'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6응신이 되어버린다.

새벽예불 가운데 하나인 향수해례(香水海禮)를 살피면 바로 알 수 있다. '서건사칠(西乾四七) 당토이삼(唐土二三)'의 참선종 조사가 나온다. 서천축 곧 인도의 가섭부터 달마까지 28명을 구구단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토 곧 중국 당나라에 간 달마부터 혜능까지 여섯 명을 나타낸다. 삽이응이라 하면 32가지로 나타나는 관음

서른 의미 '卅', 잘못 편집되기도
'卅二應' 관음보살 32응화신 의미
현장에서 적확하게 읽혀야 '화두'

보살의 응화신(應化身)이다. 본디 나옹화상의 발원문인데 현실적인 기복(祈福) 축원으로 하는 것은 아쉽다.

숫자 하나를 더 볼까? 무착문희(無着文喜, 821~900)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오대산을 올랐다가 함께 사는 대중이 몇이냐고 물었다. 문수(文殊)일 것 같은 노인이 '앞 셋셋 뒤 셋셋(前三三後三三)'이라 했다. 맑게 사는 숫자라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뜻보다 숫자에 시선을 주어보자. 앞의 이야기처럼 앞에도 삼삼(三三)이라면 자연스레 아홉(九)이요, 뒤에도 또한 아홉(九)을 더함이 아니라 곱함이어야 하므로 구구는 여든 한 명(九九八十一)이라 풀린다. 100명이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10 곱하기 10은 잘 쓰지 않으므로 9를 찬수(滿數)로 생각했으리라.

화두(話頭)는 신비하거나 이상한 말보다는 그저 말이라고 풀어야 한다. 그 말 속에 깃든 제 뜻·본 뜻·행간에 숨은 뜻 곧 상황에 맞는 쓰임새를 찾도록 물음을 던지는 말이다. 그저 말이지 말머리가 아니다.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의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乾屎橛)'라는 말처럼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똥막대기가 무엇이지 알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 또는 그에게 그 쓰임새를 분명하게 일러줬던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어야 또 쓸 수 있고 그래야 깨끗하고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중생을 건전하고 슬기롭게 만드는 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작업·업무·회의·수행의 현장에서 제대로 문해력이 작동하는 말이되 쓰임새가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 화두(話頭)다. 오해해서 중생으로 다투지 말아야 부처님의 슬기로운 제자다.

장애인 이동권, 중장기적 접근 필요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려면 사회의 장애인접근권이 중요하다. 장애인 접근권에는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권, 교통 등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등이 있다. 그 중의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다. 지하철 집회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도로, 모든 여객시설, 모든 교통수단이 이동권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이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편의 시설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보도가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좁은 보도가 휠체어 사용자가 불편하고 길말뚝, 간판, 화분 등 여러 장애물도 시각장애인의 길을 막는다.

장애인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행권, 대중교통 이용·접근권, 여객시설 정비 및 자가 운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길 위에서 보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계되고 보도의 유효폭 확보, 평평한 바닥 마감, 보행 장애물의 제거도 좀 더 이뤄져야 한다. 대도시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택시와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있으나 열악한 환

장애인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 기반해
편의시설, 이동권 관련 법률 통합해야
장애인 삶 개선은 교통약자에도 도움

경에 있는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마을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건축물의 접근과 이동은 하나로 연계하는 법률의 통합, 즉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이동편의시설을 규정한 '교통약자법'의 통합하다. 그리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 말속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차별 없이 사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해서 각자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개선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준다.

장애인들이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의 불편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의 힘든 삶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고 나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에도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요사이 많은 사찰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찰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시설을 다 갖추고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 불편을 겪기도 하고 종무원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아 안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사찰 내 갖춘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종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하다.

社 說

석전 스님 전서 발간 추진 환영한다

"석전 스님은 내전이고 외전이고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했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 없었는데, 오로지 석전 스님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천재라고 불렸던 육당 최남선이 석전 박한영 스님을 이르며 한 말이다.

위당 정인보 역시 석전 스님에 대해 "대관절 석전 스님은 한국 땅 어디에 가나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근대기 한국 문학, 사상계를 이끌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입 모아 그 학식과 인품을 칭송했던 석전 스님은 한국 불교학과 불교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은 선지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님의 전서나 관련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국대가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동국대 역사를 재정립하고, 동국의 혼을 바로 세우려면 석전 스님을 조명해야만 하며, 그 첫 걸음이 '석전 박한영 전서' 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사 연구에 있어 당대를 이끈 선지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석전 스님과 같이 교육·사상·불교·독립운동 등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선지식일 경우 전서를 비롯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불사는 꼭 필요하다. '석전 박한영 전서'가 불교학·문학·사학·교육학 등 '석전학'이라는 학제적 연구에 초석을 놓기 바란다.

제주 4·3사건, 진실규명 노력 이어져야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와 한국 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다. 76년 전 극한의 이념대립으로 약 3만여 명의 제주도민의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부모가 희생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연좌제로 인해 폭도로 구분됐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당시 불교계의 피해는 상당하다. 당시 14개 사찰 16명의 스님들이 목숨을 잃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이다.

희생된 스님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민중의 편에 섰다. 당시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를 숨겼다는 의혹으로 토벌대에게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성봉 스님은 사찰에 마을 주민을 숨겼다가 총살당했다. 신흥연 스님은 마을 청년들을 절에 숨기고 밥을 해먹였는데, 토벌대의 죽창에 생을 마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노위원이자 4.3사건 희생자유족인 법상 스님은 "특별법이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책임이 누락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 4·3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불교계 역시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평일 아침 7시 30분!
보고 싶은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3:1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송산, 일각, 지형스님의 이판사판 - 맛수다 시즌2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20:30 / 일 14: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19:00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